

해외출장 보고서

(베트남 산업단지 및 경제 현황 조사)

김석진 연구위원

1. 출장 개요

- (1) 출 장 자: 국제산업협력센터 연구위원 김석진
- (2) 출장지역: 베트남 호치민
- (3) 출장기간: 2013년 1월 7일~10일 (3박 4일)
- (4) 출장목적
 -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해 베트남 산업단지 및 경제 현황 조사
 - 베트남은 북한이 따라가야 할 모범 사례임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진출 대상지로서 북한과 경합하는 지역
 - 베트남 공단은 향후 개성공단 발전방안 수립과 관련 참고해야 할 중요 연구 대상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 일자 | 일정 및 방문기관 | 면담자 |
|------------|---------------------|------------------|
| 1월 7일 (월) | 서울 출발, 호치민 도착 | |
| | KOTRA 호치민 무역관 | 장진 부관장 |
| 1월 8일 (화) | Hwaseung Vina Co. | 김준규 이사 |
| | Hyosung Vietnam Co. | 유선형 상무 노연정 차장 |
| 1월 9일 (수) | 산업은행 호치민 사무소 | 김경준 소장 |
| 1월 10일 (목) | 호치민 출발, 서울 도착 | |

2. 주요 면담 내용

(1) 베트남 경제 및 산업 현황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베트남의 성장세 둔화

- 2000년대 초중반 7~9%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2008년 이후 5~7% 수준으로 성장률 하락
- 베트남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 신장세가 둔화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성장률도 하락
- 단, 최근에 수출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무역적자도 대폭 감소

○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영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

- 비나신, 비나라인 등 대형 국영기업의 부실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제기
- 국영기업에 대출해준 국영은행들까지 함께 부실화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
- 재정적자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상승
- 물가관리에 실패해 최근 인플레이율이 크게 상승했고 환율도 불안정
-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건설 및 부동산 투자 붐이 불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악화된 상태

○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신흥 개도국이며 외국인 투자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

-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치 상황, 법·제도의 꾸준한 개혁, 외국인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 등 여러 가지 장점 보유
- 청년층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덕분에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노동력의 질도 우수한 편
- 하지만 장기적 경제성장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
- 외국인투자기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자본집약적인 부문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
- 석유를 비롯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자원개발이 활발하며 각종 자원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본집약적 산업도 발달하기 시작
-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체 진출지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
 - 최근 미얀마가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비롯해 제반 경영환경이 미비
-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는 추세
 -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투자가 붐을 이루어 2008년까지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투자 다시 감소
 - 2010년 이후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2000년대 중후반의 피크 시기에 비하면 신규 투자 규모 훨씬 작음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 베트남에 안정적인 한국기업 네트워크 및 교민 사회 형성

-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진출 대상지로서 계속 유망하나 문제점도 존재
 - 인구 1억의 내수시장, 청년층 중심의 인구구조로 인해 경제 및 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
 - 신흥 개도국 중 가장 안정적인 정치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 문화 정착
 - 석유를 비롯해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하게 보유
 - 그러나 아직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가 불충분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은 편
 - 임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저임 노동력 활용의 매력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아직 낮아 고급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 호치민을 비롯해 경제 중심지가 발전하면서 토지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신규 투자 기업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

(2) 베트남 공단의 경영환경

-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한 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전국 각지에 많은 공단(industrial zones)을 개발해 왔으며, 이는 향후 북한의 개방정책에 큰 시사점
 - 많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의 주요 공단 지역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향후 남북경협에 중요한 시사점
- 이번 출장에서는 호치민 인근(약 1시간 30분 거리) 동나이성(省)에 위치한 연짜공단(Nhon Trach Industrial Zone)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을 방문
 - 연짜공단은 동나이성의 주요 공단 중 하나로서, 포스코를 비롯해 5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

<노동력과 임금 문제>

- 베트남이나 북한은 저소득 개도국으로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적합하기 때문에 진출기업에게는 노동력 확보, 관리, 임금 등이 중요한 이슈
- 현재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개성 지역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임.
 - 연짱공단의 경우,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주인구 규모가 커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
 - 개성공단의 경우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외지 노동력을 대규모로 유입해 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숙소 건설이 필요
 -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도 경제특구나 개방도시에 외지 노동력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기숙사 시설 건립
 - 그러나 베트남 연짱공단의 경우 경제 중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외지 노동력의 유입 규모가 비교적 적었고, 이들을 위한 숙소는 민간 업체들이 건립하여 상업적으로 임대 (대개의 경우 1실에 5인 내외를 수용하는 수준.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1실에 8~16인을 수용하는 열악한 기숙사 시설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베트남의 노동자 숙소 시설은 많이 현대화된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의 경우, 주변 농촌 지역에서까지 노동력을 데려오고 있어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있으나, 연짱공단의 경우 주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음
 - 개성공단의 경우 향후 기숙사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업이 직접 기숙사를 관리할 경우, 노동자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가능성

-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을 생산하는 화승 같은 회사에서는 노무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기숙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 베트남의 노동자 임금은 빠르게 상승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장기적으로 노동비용 상승이 중요한 문제
 - 연착공단의 경우 최근 최저임금 수준은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대략 월 350만동(약 175 달러)이지만, 몇 년 정도 숙련된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 450만동(약 225 달러) 내외
 - 2012년 현재 개성공단의 임금이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월 평균 130 달러 정도인 데 비하면,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승세 지속
 -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베트남을 대체할 생산 지역이 필요한 실정이며, 따라서 미얀마 등 또 다른 신흥 개도국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은 사정이 여의치 않음
 - 미얀마는 각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한국 및 미국 등과의 거리도 훨씬 멀어서 물류비 부담이 크며, 발전수준에 비해 토지가격도 대단히 비싼 편
- 베트남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며, 장기적으로 현지 관리인력 등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
 - 이미 상당수 사무직 및 관리직 종업원들을 현지 인력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급인력 풀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인력의 활용은 단순 생산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직, 중간관리직 등의 활용도 제고가 향후 과제
- 노동자 임금 직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 개성공단의 경우, 노동자 임금을 북측 당국에 일괄 지급하고, 북측 당국이 다시 노동자들에 현물로 지급하는 간접적 방식 채택
- 이런 방식에서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따라서 인센티브 제고 효과가 부족
- 베트남의 경우, 이제까지 대체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봉급을 직접 지급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은행 계좌 이체로 대체해 가고 있는 중
- 그러나 상당수 노동자들이 현금으로 직접 받기를 요구할 정도로, 현금 직불은 상당히 큰 심리적 의미
-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환관리제도 및 환율이 안정적이며, 현지통화인 동(dong)화가 현지경제에서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지투자 외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현지 통화로 직접 임금 지급 가능
- 그러나 북한처럼 외환관리제도가 불안하고 환율이 정책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현지통화로 임금을 지급하기가 곤란

<공단 개발 및 관리>

- 베트남의 공단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베트남 기업들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
- 일부 공단은 외국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함께 개발사업자로 참여하여 합작투자 방식으로 개발
- 동나이성의 연짜공단은 대체로 베트남 국영기업이 개발하였으며, 동나이성 공단 관리당국이 관리
- 이처럼 베트남의 공단들은 대체로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기업이 개발 및 관리 주체이므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실시

- 이와 달리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당국은 일체의 개발 및 관리 사업을 남측에 위임했고, 단지 임금과 토지임대료만을 챙기려 할 뿐, 공단 발전을 위한 정책 실시 의지가 매우 부족
- 베트남 당국은 한국기업에게 대체로 호의적이며 경영환경 개선에 협조적
 - 공단의 각종 인프라(전력, 용수, 내부 및 주변 연계 도로 등)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며 계속 개선
 - 연짜공단의 경우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과 가깝기 때문에 제반 인프라 여건이 더 좋은 편
 - 베트남의 지방정부들은 외자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므로 공단 행정관리 면에서도 기업 측에게 비교적 좋은 서비스 제공
- 다만,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 중심지들의 경우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공단 토지 가격도 크게 상승
 - 연짜공단의 경우에도 개발 초기(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토지 가격이 저렴했으나, 최근에는 꽤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앞으로 신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토지 가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베트남 당국은 공단 토지에 대해 대체로 50년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며, 입주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를 임차료로 지불
 - 지불 방법은 대개 입주 초기 1~2년 사이에 분할 지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간 임차료 형식으로 납부하기도 함
 - 북한당국은 베트남의 공단 토지가격이 개성공단보다 훨씬 비싸며 따라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그러나 베트남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베트남 측에 지불하는 토지 가격

또는 토지 임대료는 순수한 토지 가격이 아니라 기반시설 공사 등 개발이 끝난 공단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까지 보상하는 성격

- 이에 비해 남측이 북측에 지불한 개성공단 토지 임차료(1단계 100만평에 대한 1,600만 달러)는 개발 이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료이며, 개발비용은 남측이 부담했으므로 베트남에서 공단 입주기업이 지불하는 임차료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

<표> 연작 1공단의 토지 임대료 및 유틸리티 이용료

| | | |
|-----------------------|---------------------------------------|--|
| Land | Leasing Price | 1253100 VND, approximately:60 USD/ m ² / 50years |
| | Leasing term | 2048년까지 |
| | Payment method | + Installment possible |
| | Minimum plot area | + N/A |
| Management fee | Fee | 0.04 USD/ m ² /month |
| | Payment method | + Periodly |
| Electricity Price | Peak time | 1830 VND/ KWH |
| | Normal hour | 920 VND/ KWH |
| | Off peak time | 510 VND/ KWH |
| | Other information | + Charged by EVN/ KWH |
| | Payment method | + Monthly |
| Price of water Supply | Price of Industrial water supply (m3) | 4800 VND |
| | Other information | + Charged by Gov. suppliers |
| | Payment method | + Monthly |
| Sewage Fee | Sewage Fee (m3) | 0.28 USD |
| | Method of counting the volume | + Equal to 80 percent quantity of clean water |
| | Payment method | + Monthly |
| | Standard of input treatment | + Level B |
| | Standard of output treatment | + Level A |
| Other Fee | + N/A | |

자료 : IIC(Indochina international consulting co., LTD), Vietnam Industrial Parks Info Gate (<http://viipip.com>)

<원자재 구매와 제품 판로>

- 베트남은 석유를 비롯해 각종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가격 등 제반 원자재 가격이 저렴한 편
 -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의 주요 공단에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자본집약적인 업종의 대기업도 활발하게 진출
 -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각종 원자재의 국내가격을 점차 국제가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상할 계획
- 베트남은 1990년대 초부터 대외관계를 정상화했고, 2001년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발효시켰으며, 2007년에는 WTO에도 가입
 - 이런 개방정책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중국과 인접해 있어 거대 중국시장 진출에도 유리
 - 이에 비해, 북한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불가능하며, 유럽 수출은 가능하지만 EU가 저소득 개도국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함
 -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북한 진출은 곤란
 - 개성공단의 경우, 한미, 한EU FTA에서 역외가공지역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긴 했으나, 북한 핵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되어야 비로소 미국, EU 당국이 개성공단의 FTA 혜택을 인정할 전망

3.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에 대한 시사점

- 베트남 경제와 공단의 발전 상황은 향후 북한이 따라가야 할 모범 사례
 -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은 북한당국이 근

본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야만 해결 가능

- 베트남은 근본적 개혁 개방을 통해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
 - 개성공단의 최대 현안인 노동력 공급 및 노동자 숙소 문제 등의 경우, 베트남은 경제 중심지이며 인구 밀집지역을 곧바로 개방함으로써 문제 해결.
 - 또한, 시장경제 개혁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민간 업자에 의해 숙소 건설 및 임대도 이루어져 숙소 문제도 해결
 - 전반적 경제발전으로 도시 거주환경 및 교육, 의료 환경 등도 크게 개선되어 외국기업 관계자들의 거주 여건 양호
 - 제품 수출시장 확대도 베트남처럼 대외관계를 정상화하여 미국, 일본 등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
 - 노동자 임금 직불도 외환관리제도와 환율제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
 - 외국기업들의 본격적인 북한 진출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는 등 정치 리스크가 사라져야 가능
 - 아울러 북한당국 스스로, 각종 공단을 적극적, 자주적으로 개발하고 외자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평양을 비롯한 경제 중심지 및 인구 밀집지역을 개방해야 함
 - 베트남은 전국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외국기업이 진출해 경영하고 외국기업 관계자들이 거주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데 비해, 북한은 방문하기도 어렵고 통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경영환경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 하지만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보다는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관리 제도를 개선할 여지 존재

- 개성공단외의 경우, 외지 노동력 유치를 위해 대규모 노동자 기숙사를 건설해야 하며, 건설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과 관리 방법에 대해 남북한당국, 관리위원회, 남측 입주기업 등이 합리적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남북 간의 3통 환경(물자의 통관 및 수송, 사람의 통행, 통신)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성공단의 경우 3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 개선할 여지 존재. 개성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수준의 3통 환경을 갖춰야
- 북한당국이 남측 기업을 비롯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행정관리 면에서 협조하는 체제를 갖춰야